

수영야류 (水營野遊)

李 杜 鉉

역사적(歷史的) 유래(由來)

수영(水營) 야류(野遊)는 현존(現存)하는 통영(統營)과 고성(固城)의 오광대(五廣大)와 동래(東萊)의 야유(野遊)와 함께 경남일대(慶南一帶)에 분포(分布)된 한국(韓國)가면극(假面劇)의 영남형(嶺南型)의 하나이며 그 발생지(發生地)는 역시 낙동강변(洛東江邊)의 초계(草溪) 밤마리(慶南 陝川郡 德谷面 栗旨里)라고 하며 구전(口傳)에 의하면 약(約) 200여년(餘年) 전(前)에 좌수영수사(左水營水使)가 밤마리에서 오광대(五廣大)패들을 불러다가 놀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수영야유(水營野遊)는 초계(草溪) 밤마리 직계(直系)이며 수영(水營)에서 동래(東萊)와 부산진(釜山鎭)으로 전파(傳播)된 것이라고 한다.

초계(草溪) 밤마리 대광패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오광대(五廣大)는 점차 각지(各地)로 전파(傳播)되어, 신반(新反)·의녕(宜寧)·진주(晉州)·산청(山淸)·창원(昌原)·통영(統營)·고성(固城)·김해(金海) 등지(等地)에서는 오광대(五廣大)라고 불리우고, 수영(水營)·동래(東萊)·부산진(釜山鎭) 등지(等地)에서는 들놀음을 뜻하는 야유(野遊)라고 불리워왔다.

이 야유(野遊)라는 명칭(名稱)에 대해서도 야유(夜遊)·야유(治遊)·야유(挪揄) 등(等)으로 한자표기(漢字表記)를 하고, 최근년(最近年)(1968年 10月)에 작고한 연희者(演戲者) 최한복翁(崔漢福翁)의 수영유사(水營遺史)에는 「그名稱부터가 治遊라면 누구나 夜遊 或은 野遊로 思함이 常識의이나, 何必 治遊라 名함이 意義가 깊다. 治遊는 世間에서 硬度를 자랑하는 鋼鐵이라도 一段 治場에 入하기만 하면, 溶解되어 所要의 用器로 化하여 지므로 가장 權威있는 兩班層을 本治場으로 導入하여 平和하고 仁愛한 人間으로 改造하자는 一諷刺劇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부회설(附會說)을 말하기도 하였다.

수영(水營)의 야유(野遊)는 음정월(陰正月) 대보름에 산신제(山神祭)와 함께 거행(舉行)되던 민속극(民俗劇)이다. 이 행사(行事)의 준비(準備)로 정월초(正月初) 3~4일경(日頃)부터, 야유계(野遊契)가 주동(主動)이 되어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돌며 지신(地神) 밭기로 걸립(乞粒)한다. 이 지신(地神) 밭기로 야유(野遊)의 경비조달(經費調達)과 함께 부락(部落)과 각(各) 가정(家庭)의 벽사진경(辟邪進慶)을 위한 행사(行事)임은 물론(勿論)이다.

지신(地神) 밭기대(隊)는 수양반역(首兩班役)을 중심(中心)으로 마을 사람들이 한 떼가 되어 집집마다 순방(巡訪)하면서 장단에 맞추어 춤추며 수양반(首兩班)이 성주풀이부터 시작하여, 조양풀이, 장독풀이, 샘풀이, 마구풀이, 동장(고방)풀이, 뒷간풀이를 차례로 하

여 주고 대문(大門)풀이로 끝맺는다. 이 때 각(各) 가호(家戶)에서는 향(香)불과 주과(酒果)를 대문(大門)앞에 차려놓고 대열(隊列)을 환영(歡迎)하고 응분(應分)의 전곡(錢穀)을 희사(喜捨)하였는데 이것을 야유(野遊)의 경비(經費)로 충당하였다. 이 지신(地神)밧기는 정월(正月) 13일경(日頃)까지 계속되어 부락(部落)의 전가호(全家戶)를 들게 된다.

한편 일정(一定)한 장소(場所)에서는 야유(野遊)에 사용할 가면(假面)을 제작(製作)하는데 수일간(數日間) 정성을 기울려 제작(製作) 완료(完了)되면, 「탈제」를 모시고 무사(無事)히 놀이를 끝마치기를 기원(祈願)한다.

이렇게 하여 경비(經費)와 가면(假面)과 의상(衣裳) 기타(其他)의 준비(準備)가 완료(完了)되면 정월(正月) 14日 밤에 이른바 「시박」을 갖는다. 시박이라 함은 시연회(試演會) 또는 총연습(總演習)과 같은 것이어서 각기(各己) 연습(練習)한 연기(演技)를 원로(元老)들 앞에 보이고 말하자면 심사(審査)를 받고 자기(自己) 배역(配役)을 확정(確定)받는 것이다. 그 중 주역(主役)인 수양반(首兩班)과 말뚝이역(役)이 제일 어려워, 재담(才談)과 춤에 능(能)해야만 한다.

「시박」에서 각기(各己) 배역(配役)이 확정(確定)되면, 대보름날 낮에 출연(出演) 분장(粉粧)을 한 수양반(首兩班)이 주동(主動)이 되어 풍물을 대동하고 주과포혜(酒果脯醢)의 제물(祭物)을 차려 먼저 새해의 마을의 평강(平康)과 만복(萬福)을 빌어 수영(水營)의 「土神之位」와 「□神之位」를 모신 제당(祭堂)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다음으로 「遠水井」에서 우물고사를 지내고, 이어 최영장군묘(崔瑩將軍廟)에 묘제(廟祭)를 지내고, 달이 뜨기를 기다려 야유(野遊) 놀이를 시작한다. 이러한 산신제(山神祭)와 고사(告祀), 묘제(廟祭)에 이어 거행(舉行)된 수영야유(水營野遊)는 부락제(部落祭)의 신악(神樂)으로서의 종교적(宗敎的) 의의(意義)를 오래도록 전(傳)해 내려온 예(例)라고 할 수 있겠다.

제4과장 사자(獅子)춤의 유래(由來)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종교적(宗敎的) 의의(意義)를 부여하고 있다. 즉, 수영(水營) 동남(東南)쪽의 백산(白山)이 지세(地勢)로 보아 수영(水營)의 앞산인데도 불구(不拘)하고, 그 형상(形象)이 마치 사자(獅子)가 마을을 등지고 달아나는 모양이므로 그 사자신(獅子神)을 위무하기 위하여 제수(祭需)로 범을 바쳐 치제(致祭)하는 놀이라고 하였다.

또 일설(一說)에는 백산(白山)의 형상(形像)이 마치 사자(獅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과 같아서, 당시 왜적(倭敵)이 자주 동남해안(東南海岸)에 나타나서 침범(侵犯) 노략질함에 그 왜적(倭敵)을 범으로 가정(假定)하여 수영(水營)의 수호신(守護神)인 앞의 백산사자(白山獅子)를 너무 괴롭히면 사자(獅子)가 범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상징(象徵)한 것이 이 사자(獅子)와 범춤 과장(科場)이며, 혹자(或者)는 왜적(倭敵)이 수영(水營)의 사자(獅子)춤을 보고 그 웅장(雄壯)하고 절묘(絶妙)한 놀이에 현혹(眩惑)되어 자기 나라에 가서 흉내낸 것이 일본(日本)에 전(傳)하는 「越後獅子舞」의 유래(由來)라고도 한다.

등(燈)놀이와 농악(農樂)놀이에 이어 제(第)1과장(科場) 양반(兩班)놀이 제(第)2과장(科場) 영노, 제(第) 3과장(科場) 할미·영감놀이, 제(第)4과장(科場) 사자(獅子)춤이 끝날 무렵이면 이미 자정(子正)도 지나 촛(燭)불도 희미해지고, 사방(四方)의 모닥불만이 밝다. 놀이를 마친 광대(廣大)들은 가면(假面)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고사(告祀)를 지내고 불태우면서 제액(除厄)과 행운(幸運)을 축원(祝願)한다. 이튿날은 각(各) 역원(役員)들과 연희자(演戲者)들의 뒷잔치로 새해의 큰 행사(行事)를 완전히 끝맺는 것이다.

최근년(最近年)에 돌아간 연희자(演戲者) 조두영(趙斗榮)(1964年 2月 2日 死亡, 當時 73歲)과 최한복(崔漢福)(1895年 3月 9日生(陰曆) 1968年 10月 中旬 死亡) 양옹(兩翁)이 명연희자(名演戲者)로 유명(有名)했으며, 조옹(趙翁)은 말뚝이 역(役)을 최옹(崔翁)은 수양반역(首兩班役)을 맡아 했으며, 가면제작(假面製作)도 겸(兼)하여 하였었다. 현재(現在) 수영야유(水營野遊)의 대부분(大部分)의 연희자(演戲者)들이 이 두 분에게 배운 것이며, 동래(東萊)의 말뚝이 역(役) 박덕업(朴德業) 노인(老人)도 조두영(趙斗榮) 옹(翁)에게서 말뚝이 춤을 배웠다고 한다.

특징(特徵)

수영야유(水營野遊)의 연출형태(演出形態)도 다른 가면무극(假面舞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춤이 주(主)가 되고 재담(才談)과 노래와 동작(動作)을 곁들이는 탈춤 놀이의 일종(一種)이라 하겠다. 그 춤은 오광대(五廣大)와 야유(野遊)에 공통되는 덧배기춤 사위이며, 말뚝이 춤은 동래(東萊)의 말뚝이 춤과 마찬가지로 건무(健舞)로서 매우 활발(活潑)하며 특색(特色)이 있다.

수영야유(水營野遊)의 과장(科場)은 「양반(兩班)」 「영노」 「할미·영감」 「사자(獅子)춤」의 4과장(科場)으로 구성(構成)되어 동래야유(東萊野遊)와 같은 4과장(科場)이나 동래(東萊)의 문둥이과장(科場)대신 사자과장(獅子科場)이 들어 있다.

동래야유(東萊野遊)가 점풍(占豊)과 기풍행사(祈豊行事)인 줄다리기 대회(大會) 뒤에 일종(一種)의 축하행사(祝賀行事)로 행(行)해지며 탈놀이 자체가 종교적(宗敎的) 행사(行事)이기 보다는 다분(多分)이 한량놀이로서 오락적(娛樂的) 행사(行事)인데 비(比)하여 수영야유(水營野遊)는 산신제(山神祭)에 이어 거행되며 놀이과장(科場) 속에 사자(獅子)춤이 들어 있어 벽사정상(辟邪廷祥)의 종교적(宗敎的) 의의(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와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가 그 전과경로(傳播經路)로 보아 서로 비교(比較)되듯이 이제 야유(野遊)의 쌍벽(雙璧)으로 동래(東萊)와 수영야유(水營野遊)가 남아 서로 비교(比較)가 된다.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가 그 대사(臺詞) 내용(內容) 기타(其他)에 있어 통영오광대(統營五廣大)보다 비교적(比較的) 소박(素朴)하고 원형(原形)에 가까운 것처럼 수영야유(水營野遊)가 동래(東萊) 야유(野遊)보다 더 고풍(古形)인 것 같다. 전과경로(傳播經路)로 보아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현전(現傳)하는 대사(臺詞)로 보아서도 대체(大體)로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內容)이기는 하나 약간의 차이(差異)가 보인다. 가령 할미·영감 과장(科場)에서 부부(夫婦)싸움에서 할미가 아들 셋을 죽인 대목은 같으나 청어(靑魚)사서 「당신 한 마리 나 아홉 마리 안먹었능기요」라는 대목 같은 것은 수영야유(水營野遊)에만 남아있으며, 하회별신(河回別神)굿놀이의 「살림살이」 과장(科場)에 같은 대사(臺詞)가 보여 이것은 보다 고풍(古形)의 잔존(殘存)이 아니가 생각된다.

놀이의 내용(內容)은 앞서 든 네 과장(科場)에서 1, 양반(兩班)에 대한 조롱(嘲弄)과 모욕(侮辱). 2, 일부대처첩(一夫對妻妾)의 삼각관계(三角關係)에서 오는 남녀(男女)의 갈등(葛藤). 3, 사자(獅子)춤의 벽사정상(辟邪廷祥)의 축원(祝願)등이 주(主)된 내용(內容)이며 동래(東萊)야유와 마찬가지로 「말뚝이 재담(才談)」이 주(主)가 되고, 양반(兩班)에 대한 반감(反感)과 조롱(嘲弄)은 한국민속가면극(韓國民俗假面劇) 중에서 가장 우심(尤甚)한 바가 있다 하겠다.

가면(假面)과 의상(衣裳)은 동래(東萊) 것과 역시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의상(衣裳)은 대체(大體)로 이조(李朝)의 양반(兩班)과 평민(平民)의 복색(服色)이며 가면(假面)은 양반(兩班) 가면(假面)들이 사실적(事實的)인 인면(人面)인데 비하여 말뚝이는 봉산(鳳山) 탈춤의 목중탈처럼 귀형면(鬼形面)에 가까운 비사실적(非事實的)인 것이며 괴수(怪獸)를 나타낸다는 영노탈 역시 비사실적(非事實的)인 것에 특색이 있다 하겠다.

오광대(五廣大)와 야유(野遊)의 특유(特有)한 춤사위라고 하는 덧배기 춤에 반주(伴奏)되는 음악(音樂)역시 「응박 캥캥」이라고 표현(表現)되는 굿거리 장단으로서 이 지방(地方) 특유(特有)의 바리에이션을 갖고 있다.

대사(臺詞) 및 가사(歌詞)

鄭時德 · 太命俊 口述
李杜鉉 採錄 (1970. 7. 錄音)

등(燈)놀이와 농악(農樂)놀이

수영야유(水營野遊)는 전후(前後) 양부(兩部)로 대분(大分)할 수 있다. 전부(前部)는 일종(一種)의 길놀이로서 등(燈)놀이와 농악(農樂)놀이이며 이 놀이에 이어 후부(後部)로 탈놀이를 계속한다.

음력(陰歷) 정월(正月) 대보름날 낮에 제당(祭堂)과 원수정(遠水井)과 최영장군묘(崔瑩將軍廟)에 차례대로 제(祭)를 지내고 어둑기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달이 뜨자 입장(入場)하는데 행렬순서(行列順序)는 맨 선두(先頭)에 소등대(小燈隊)가 자리잡고 다음이 풍악대(風樂隊) 그 다음이 길군악대 이어서 팔선녀(八仙女)가 앞장 (또는 首兩班 左右에) 서서 지화자를 부르며 사자(獅子) 또는 차마(車馬)를 탄 수양반(首兩班)이 나오고 그 뒤에 난봉가패 양산도 소리패의 순서(順序)로 장사진(長蛇陣)을 치고 가장(假裝), 가무(歌舞), 연등(燃燈)의 화려(華麗)한 일대행렬(一大行列)을 이룬다.

소등대(小燈隊)는 언제나 마을 아이들이 담당(擔當)하는데 긴 새끼의 마디에다가 소등간(消燈竿)을 끼우고 거기에 소등(小燈)을 달아서 수십명(數十名) 아이들이 긴 새끼줄을 들고 행진(行進)한다. 이 소등대열(小燈隊列)이 놀이판에 도착하면 즉시(即時) 미리 장치(裝置)했던 거미줄 망(網)에다가 옮겨 걸고 놀이판의 조명(照明)을 하게 된다.

놀이판은 장터 중앙(中央)에 장간(長竿)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旗)를 꽂고, 그 바로 아래 큰 등(燈)(龍燈, 鳳燈, 龜船燈, 蓮花燈 等)을 달고, 사방(四方)으로 새끼줄을 거미줄처럼 친다. 이 새끼줄에는 보통 2~3백개(百箇)의 소등(小燈)을 적당한 간격으로 달고 그 상하(上下) 승강이동(昇降移動)이 가능(可能)하여 등(燈)을 자유(自由)로이 걸 수 있다. 이 중앙(中央) 대등대(大燈臺)을 지주(支柱)로 하고, 원형(圓形)으로 금(禁)줄을 치고, 그 줄 안은 놀이마당이고, 줄 밖은 관람석(觀覽席)이 된다. 이러한 노천무대(露天舞臺)를 몇 개의 대등(大燈)과 몇백 개의 소등(小燈)들이 낮과 같이 조명(照明)하게 되는 것이다. 개복청(改服廳)은 야유사무실(野遊事務室) 안에 설치(設置)하고, 분장(扮裝)을 외인(外人)들에게 사전(事前)에 보이지 않도록 유의(留意)한다.

풍악대(風樂隊)는 쟁쇠(쟁과리)가 2~3명(名), 장고(長鼓)가 4~5명(名), 소고(小鼓)가

약(約) 10명(名), 징 1명(名)과 북 1~2명(名)으로 구성(構成)되는데, 각기(各其) 고깔을 쓰고, 고깔에다가 조화(造花) 한 송이씩을 달고, 그 중(中) 설괘쇠와 설장고, 설북 등은 조화(造花) 세 송이를 고깔 위 좌우(左右)에 달았다고 한다.

길 군악대(軍樂隊)는 수십인(數十人)이 장고(長鼓) 하나만 가지고 풍악대(風樂隊)와 장단(長短)을 맞추면서 길군악(軍樂)을 하는데 아래의 노래를 합창(合唱)하면서 행진(行進)한다.

<길군악>

1. 일출(물)서산에 해는 지고
 을출(月出) 서(동)산에 달이 뜬다.
 (후렴) 에헤헤 에헤헤 에헤헤 에헤헤 헤야
 애—루화 이(우)여로 산이로다.
2. 산아 산아 수영 산아
 눈비 맞고서 백두산아.
 (후렴)
3. 강아 강아 수영강아
 물을 도아 압록강아
 (후렴)
4. 들아 들아 수영들아
 초를 모아 넓은 들아
 (후렴)
5. 녹두청산 절신한데
 만학천봉이 생겼구나
 (후렴)
6. 짝진 조종은 곤룡산이요
 수진 조종은 안두리라
 (후렴)

팔선녀(八仙女)는 원근(遠近)에서 불러온 기생(妓生)들로서 지화자를 부르면서 춤추며 행진(行進)한다.

난봉가패와 양산도소리패는 각각(各各) 10명(名) 이상(以上)으로 구성(構成)하는데 장고(長鼓)의 장단(長短)에 맞추어서 난봉가와 양산도를 합창(合唱)하며 행진(行進)한다.

<난봉가>

1. 난봉이 났구나 난봉이 났구나 나무집(남의 집) 귀동자 새로 난봉이 났구나
 (후렴) 에헤 에헤 에에여 어를만 두리둥둥 내 사랑만 하노라.
2. 실실 동풍에 구진비 주룩룩 오는데
 시하야 연풍에 내사랑만 가노라
 (후렴)

〈양산도〉

에헤이야 말을 타고서 꽃밭을 가니
자죽 자죽이 향내로구나
에하라 놓아라 아니 못놓리라
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겠네

여상(如上)의 행렬(行列)이 입장(入場)하는 대로, 낮처럼 환한 원형(圓形) 노천무대(露天舞臺)에서 농악무(農樂舞)가 각자(各自)의 멋대로 신나게 이루어진다. 이 때에는 남녀노소(男女老少)없이 또 타지방(他地方)에서 온 사람이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군무(群舞)속에 뛰어들어 즐길 수 있었다. 이 때 무대에 들어갈려면 한지(韓紙)로 만든 고깔을 썼는데, 이 고깔은 야유사무실(野遊事務室)에서 비치(備置)했다가 타지방(他地方)의 내객(來客)에게 요청(要請)에 따라 나누어 주는데 다소의 희사(喜捨)를 받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어, 마치 입장료(入場料)의 구실을 했으며, 기실(其實) 고깔을 쓰지 않고서는 떨어지는 초똥 때문에 마음놓고 춤을 출 수도 없었거니와 또 장내(場內)의 질서(秩序) 유지상(維持上) 필요한 것이었다고 한다.

관중(觀衆)까지도 여분(與奮)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농악무(農樂舞)와 함께 해학적(諧謔的)인 가장(假裝)이나 촌극(寸劇) 무용(舞踊)등이 연출(演出)되면서 폭소(爆笑)를 자아내기도 한다.

3~4시간(時間)을 기진(氣盡)하도록 농악무(農樂舞)가 계속되고 그 열(熱)이 식어갈 무렵 수양반(首兩班)이 등장(登場)하므로써 수영야유가면극(水營野遊假面劇)이 시작된다.

제1과장 : 양반

수양반(首兩班)(사모관대(紗帽冠帶)의 풍골(風骨)좋은 50대(代) 인물(人物)), 지차 양반(兩班)(차양반(次兩班), 홍안(紅顏)백발(白髮)의 70대(代) 노인(老人)), 셋째 양반(兩班)(30대(代)의 무직(無職)한 인물(人物)), 넷째 양반(兩班)(20대(代)의 경박(輕薄)한 인물(人物)), 종가(宗家)집 도령(道令)(영리(伶俐), 경박(輕薄)한 10대(代)의 책방도령(冊房道令))이 차례로 등장(登場)하여 제각기 음악(音樂)에 맞추어 덧베기춤을 한참 춘다.

수양반 : (사선(紗扇)을 저으며) 쉬— (음악과 춤은 그친다.)

수양반 : 척지구폐효(跣之狗吠堯)는 효비불인(堯非不仁)이로되 구고폐비기주(狗故吠非其主)라 소년당상 아기 도령 전후 좌우 버려 있고 말잡아 북메우고 소잡아 장기 메고 각성(各姓)반이 갱쇠치고 운봉(雲峰)내기 징치고 차일갈고 덕석치고 술비비고 떡거리며(모두가 정반대(正反對)의 표현(表現)) 홍문연(鴻門宴) 높은 잔치 항장(項莊)영 칼춤 출 때 이몸이 한가하여 공성신퇴후(攻城身退後)에 염천(臨泉)에 초당짓고 만권시서 사아놓고 금존(金樽)에 술비버어 절대가인 곁에 두고 벽오동 거문고 줄골라 백상(壁上)에 걸어두고 남풍시(南風詩)를 화답할 제 엇다 이 제—길 불고 경각대명(頃刻待命)갈 연석들 저희라사 양반인 체로 양반의 사랑 앞에서 밤이 맞도록 음박 갱갱을…… (수양반이 악사들을 향하여 사선을 저으면 풍물치고 다섯양반 광대가 함께 춤을 추며 3~4분 논다).

수양반 : 쉬— 쉬—. (음악과 춤은 그친다). 우리 양반의 집 자석으로 과거갈 때가
입박 하였이니 과거갈 준비로 해야지 어떨까?

차양반 : 그러기로 하지

셋째양반 : 암, 그래야지.

넷째양반 : 그러기로 함세(일동 동의를 표한다. 과거 준비로 글짓기를 한다.)

수양반 : (차양반에게) 사촌이 노련하니 운자(韻字)로 내여 보세

차양반 : 그럼 뻑뻑을 응(應)자가 어떨꼬.

일 동 : 그거 좋지

수양반 : (세째양반에게) 다음은 자네가 내여 보세.

셋째양반 : 나는 엽을 박(薄) 자로세.

일 동 : 그것도 좋겠다.

수양반 : 뻑뻑을 응, 엽을 박, 응박~~. (「應薄」을 연창하며 사전을 저으면서 음
악이 울리고 다시 다섯광대가 제각기 춤을 추며 3~4분 놀다가)

수양반 : 쉬— (음악과 춤은 그친다)

수양반 : 과거를 갈라면 옛날 선조대감시부터 부리던 하인 막득이(말뚝이)를 다리고
감 이 어떨꼬?

일 동 : (의논 끝에 합의가 되어 부른다.) 이놈, 막득아—

종가도령 : 막득아, 막득아 (경박하게 까블며 막득이를 부르면 수양반이 도령의 면
상을 사선으로 때려서 꾸짖어 놓고)

수양반 : 이놈 막득아—, 이래 양반답게 불러야지(도령 고개를 까닥거리고 썼다. 말
뚝 이는 좀체로 나타나지 않는다)

수양반 : 그럼 차례대로 작시(作詩)나 하여 보세

일 동 : 그럼세

수양반 : 수도월상가련소(樓頭月上加憐霄) 강산초 봉이상사(江上初逢李相士)(영시
(咏 詩)한다) [수사의 영애와 이상사와의 사랑을 은유한 것이라고 한
다]

차양반 : 죽장(竹杖)짚고 망혜(芒鞋)신고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폭포도 좋다마는 여
산(廬 山)이 여기로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에 옛말삼을 들어
보니 의신 은하락구천(疑是銀河落九天)은 과연 허언(虛言)이 아니로다.
그물에 유두(流 頭)하야 진금(塵襟)씻은 후로 석경(石徑)에 좁은 길로 인
도한 곳을 내려가니 저희(沮溺)는 발을 갈고 사호노인(四皓老人)은 바둑
들 때 (창을 한다)

셋째양반, 넷째양반 : (각기 단가를 창한다)

종가도령 : (천자 뒷풀이를 한다)

(각자 한마디씩 부르고 나서)

수양반 : 쉬— 각기 작시 자창(自唱)을 하였이니 공동합창이나 하여보세. (일동 합
의가 되어 백구타령을 부른다)

<백구(白鷗)타령>

1. 백구야 훨훨 나지를 말아라.

내 너 잡으려 내 안간다.

(후렴) 남문을 열고 바라로 치니

계명 산천이 밝아온다.

(제1절의 후렴까지 부른 후에 다섯광대는 음악에 맞추어 춤추다가 제2절을 합창한다.)

2. 세월아 봄철아 가지 마—라.

사업에 청년이 다 늙는다.

(후렴) 아서라 아서라 죽고 경주로 가니 계명 산천이 밝아온다.

(후렴 뒤에 다시 음악과 춤으로 한바탕 즐기다가)

수양반 : 쉬— (음악과 춤은 그친다)

차양반 : 막득이 늙을 불렀으되 소식이 없이니 다시 한번 불러봄이 어떨꼬.

셋째양반 : 그놈의 개똥상놈은 한번 부르면 당장에 대령할 것이지 뭘 또 부루다니 웬말이
요(부르자느니 말자느니 이론(異論)이 분분하다가 결국 다시 부르기로 합의하 고)

일 동 : 이놈, 이놈, 막득아—

(세차게 불러 놓고 다시 합창한다 오독독이 타령이다. 타령을 하면서 중간에 수양반과 차양반의 대화가 섞인다)

<오독독이 타령>

1. 오독독 오독독이 춘양추추 월위월이 달도 밝고 명랑하다.

풍구다 당실 풍구다 당실.

수양반 : 달이 밝다니?

차양반 : 보름달이던가 보다

수양반 : 너 몰랐다. 월명성희(月明星稀)에 오작(烏鵲)이 남비(南飛)로다.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지랄로 혈신 연자바리고

아—아 어허허 허허 혈레로구나

(음악과 춤으로 잠시 놀다가 다시 부른다.)

2. 저놈의 양반 거동보소,

저놈의 양반 거동보소.

갓을 벗어 등짐하고 이리로 비틀 저리로 비틀 비틀 비틀 비틀

수양반 : 비틀 비틀이라니

차양반 : 술을 먹었던가 바

수양반 : 너 몰랐다. 취야와공산(醉也臥空山)하니 갱문행화촌(更問杏花村)이라

용타 용타 용타 용타

(음악과 춤으로 잠시 즐기다가.)

3. 수양산 깊은 골로 가만히 술술 들어가니 버드나무 잎사구로 한오큼 주루룩 훑어
다가 깊고 깊고 깊은 물에 여개도 풍덩 저개도 풍덩 풍덩.

수양반 : 풍덩 풍덩이라니?

차양반 : 웅덩에 돌을 던지는 갑다.

수양반 : 너몰랐다. 양유청청(楊柳青青)에 도수령(渡水人)이로다.
용타 용타 용타 용타
(후렴후에 음악과 춤으로 한참 놀다가)

수양반 : 쉬— (음악과 춤이 그친다)

셋째양반 : 막득이란 놈은 제 애비때 부터가 오만한 놈이라 한두 번 불러서 아니 나오는
놈이니 한번 더 불러보기로 함이 어떨꼬?
(일동 완강하게 반대하는 등 이론이 분분하다)

차양반 ; 봉욕을 당해도 적잖이 한 섬쯤은 받을 걸세

수양반 : 그러나 저러나 봉욕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이니 내가 적당하게 육분배로 하
지 육이 만약 한섬이 내린다면은 지차는 닷말을 먹고 셋째와 넷째는 똑 같이
두 말씩 먹고 종가아기는 한말만 쳐먹으면 안되겠나?

차양반 : 수양반, 너는 한되도 안 쳐먹겠단 말인가?
(서로 수양반에게 육설을 퍼부우니 수양반이 종가의 책임상 봉욕을 독담키로
한다.)

수양반 : 내가 전책임을 지고 육사발을 다 먹을 것이니 다시 부름세.

일 동 ; 이놈 막득아, 이놈 막득아— (이때 말뚝이는 험상궂은 가면에 마고자를 입고 명
주수건으로 양쪽 다리를 대담하고 채찍으로 동짐지고 등장한다.)

말뚝이 : 이제야 다시 보니 동정(洞庭)은 광활(廣闊)하고 천봉만학(千峰萬壑)은 구름 우에
솟아있고 양유천만사(楊柳千萬絲) 계류춘풍(繫留春風) 자랑하고 수상부안(水上
浮雁)은 지당(池塘)에 뽕뽕(泛泛) 추풍강산 살얼음은 눈 우에도 잠간이고 대주
먹이 팽토제(平土祭)는 경각(頃刻)에 하박인데 별유천지비인간에 소인 막득이
문안이요.

수양반 : 이놈 은쟁반 선수박은 호로이 빙빙이오 대주먹이 팽토제는 경각에 타망이라 너
같은 개똥 상놈 나같은 옥당 양반 네놈 한놈 때려 죽이면 귀양밖에 더 가겠느
나?

막득이 : 귀양을 가면 어디로 가리오?

수양반 : 이놈 함경도라 치치달아 길주명천(吉州明川) 삼수갑산(三水甲山) 부령청진(富寧
淸津) 꼬사리밭 밖에 더 가겠느냐! (수양반이 길주 길주를 연창하면서 사선을
휘두르면 풍물이 울리고 다섯광대와 말뚝이는 함께 춤을 추고 놀다가)

수양반 : 쉬— (음악과 춤은 멈춘다)

수양반 : 이놈 막득아 저게 선 도령님에게 문안 잘디렸느냐?

말뚝이 : 아니 드렸오이다.

수양반 : 저게 선 도령님이 홀륭하고 깨끗하고 물찬 제비 같고 깨어진 파구(破具)로다.
앞이면 작약(芍藥)같고 서면 목단(牡丹)이라 옥안을 상대하면 여운간지명월(如
雲間之明月)이요, 단순(丹脣)을 반개하면 약수중지연화(弱水中之蓮花)로다. 모
질기는 콩싸래기요 독하기는 보리싸래기 같은 지라 도령님에게 빨리 문안드려
라.

막득이 : 저게 선 도령님이 청보도령님인지 꾀보도령님인지 삼간제당 열쇠 맡은 도령님인
지 선달 그믐날 저녁에 제상판 밑에서 낳은 도령님인지 도령님 문안이요.

수양반 : 이놈 막득아 과거때는 임박한데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단 말이나.

막득이 : 왜 그러오릿가 서방님 찾으려고 아니간데 없입니다.

수양반 : 이놈 어데 어데를 갔단 말이냐?
말뚝이 : 서방님이 소년시절에 호협하신지라 팔선녀짐을 다 찾았입니다.
수양반 : 그래서
막독이 : 난양공주(蘭陽公主), 영양공주(英陽公主), 진채봉(秦彩鳳), 백능파(白菱波), 계심월(桂蟾月), 적경홍(狄驚鴻), 가춘운(賈春雲) 짐을 다 찾어도 서방님은 커니와 아무개 아들놈도 없습디다.
차양반 : 이놈 개아들이라니
일 동 : (말뚝이에게 대들며 옥 질문(質問)을 하여 장내가 소란해 진다.)
수양반 : (차양반에게) 사촌이 가서 적당히 물어 보게
차양반 : (말뚝이에게 가서 조용히 묻는다)
말뚝이 : 개개(皆皆)히 찾았단 말이요.
(차양반이 수양반에게 말뚝이의 뜻을 고하면)
수양반 : 그러면 그렇지! 그만만 찾았단 말이냐
막독이 : 장안 종로로 다 찾았입니다.
수양반 : 그래서
말뚝이 : 일광암(嶽). 이목골, 상청동, 사제골, 오궁토(터), 옥조앞, 칠관앞, 팔각제, 구리기(개), 십자골, 두루시 다 찾아도 서방님은커녕 아무 새 아들놈도 없습디다.
셋째양반 : 이놈 새 아들이라니!
일 동 : (말뚝이에게 다시 옥질문을 하며 야단이다)
(차양반이 말뚝이에게 조용히 물으면)
말뚝이 : 새새(細細)히 찾았단 말이요.
(차양반이 수양반에게 가서 전하면)
수양반 : 그래서 그만만 찾았단 말인가.
막독이 : 팔도도방(八道都房)을 찾았입니다.
수양반 : 그래서
말뚝이 : 일월산(元山), 이강경(江景), 삼파주(坡州), 사마산(馬山), 오삼랑(三浪), 옥물금(勿禁), 철남창(南倉), 팔부산(釜山) 두루시 다 찾아도 아무 내 아들놈도 없습디다.
넷째양반 : 내아들이라니 이놈.
일 동 : (말뚝이에게 옥질문을 하고 야단이다).
(차양반이 말뚝이에게 조용히 물으면)
말뚝이 : 내내히(끝끝내) 골골내 다 찾았단 말이요. (차양반이 수양반에게 전하면)
수양반 : 그래 이놈 그만만 찾았단 말이냐.
말뚝이 : 서방님 댁을 찾았입니다.
수양반 : 그래서
막독이 : 댁을 썩 들어가니 종년 세탁가고 도령님 책끼고 학당(學堂)가고 머슴 논갈리 가고 집안이 고교한데 대부인 마누라 오르랍디다.
차양반 : 이놈 오르다니,
셋째양반 : 이놈 담을 오르다니
넷째양반 : 이놈 마리에 올라가다니
종가도령 : 이놈 손을 잡다니(각양반이 형형색색으로 옥질문을 하면 말뚝이가 차양반에게)

말뚝이 : 출(축)담을 오르랍니다.

수양반 : 그래서

막둑이 : 방문을 썩 열어보니 청능화(靑綾畵) 띠 띠고 황능화 도백에 청능화 띠 띠고 평 새끼 기린 방에 매새끼 날아들고 매새끼 기린 방에 평새끼 날라들 제 한백(백)을 바라보니 한중실 유황숙(劉皇叔)이 와룡 강상(臥龍江上) 풍설중에 제갈선생(諸葛先生) 보려 하고 동자불러 들을적에 익덕(翼德)은 손을 잡고 자는 잠을 깨우라고 고래눈을 부릅뜨고 운장(雲長)은 만류하며 동정을 보는 경을 역력히 기려 있고 또 한백바라보니 상산사호(商山四皓) 옛 노인이 바둑판 앞에 놓고 한노인 백기(白棋) 들고 한 노인 흑기(黑棋) 들고 또 한노인 훈수(訓手) 구경 하려하고 머리우로 넘어 보며 또 한노인 동자불러 차다리며 백우선(白羽扇) 손에 들고 松林(松林)에 비겨누어 한가히 조는 양을 역력히 기려있고 또 한백바라보니 탕(湯)님금 회생되어 전가(조) 단발(剪瓜斷髮) 하옵시고 대우방비를 빌다 곤룡포(袞龍袍) 적사 입고 용궁으로 가는 양을 역력히 기려있고 또한 백 바라보니

동해상(東海上) 강태공(姜太公)이 전팔십(前八十) 궁곤하야 갈사갓 숙여 씨고 끈은 낚시 던져놓고 위수반(渭水濱)에 앉인 경을 역력히 기려있다. 동창을 열고 보니 때마침 삼촌이라 화발풍(花發風) 자로 불어 만하방창(萬花方暢) 꽃이 필 제 퇴끼상등 순(舜)님금이 팔원팔개(八元八愷) 다리시고 오현금(五絃琴)

남풍시(南風詩)에 해오민지은혜(解吾民之慍兮)하던

군왕부귀모란화(君王富貴牧丹花)며 수양산 을설중(月雪中)에 해원씨(軒轅氏) 몸이 되어 조갈게라 호령하던 순국충신 향일화(向日花)며 심양처사(溇陽處士)

도연명(陶淵明)이 오두목(五斗祿)을 하직(下直)하고 전원(田園)에 돌아들어

악금서이오유(樂琴書以娛遊) 은일풍도(隱逸風度) 국화꽃과 육국풍진(六國風塵)

상산사호(商山四皓) 삼진갈포 몸에 입고 청여장(靑黎杖) 비껴 놓고 석담(石榻)에

잠이 드니 노인방불 박꽃이며 이십세 등장군(登將軍)이 백수진인(白鬚眞人)

잠간만나 나라를 중흥하고 승상인수(丞相印綬) 받았이니 청춘소년 석죽화(石竹花)며

설도(雪桃) 같은 묘(妙)한 일색 옥루사창(玉樓紗窓) 비겨앉아 황혼백마(黃昏白馬)

야유(野遊) 중에 추과들어 송정(送情)하니 향기좋은 해당화(海棠花)며

선풍도골(仙風道骨) 사안석(謝安石)에 절대가인 손을 잡고 사직으로 전도하며 동산

우에 올라노니 풍유랑(風流郎)은 홍도백도(紅桃白桃) 꽃구경도 좋거니와 원근산천 못새들이 경을 쫓아 날라든다. 부용당(芙蓉堂) 운무중에 오체가 영롱하고 기림속에

공작이며 양유(楊柳)에 봄이드니 교교호호 노래하던 봄빛쫓는 꾀꼬리며 칠월칠석 은하수 다리놓던 오작이며 일쌍비거각비회(一雙飛去却飛廻)하니 전불상임 원양새며

상림원(上林苑) 글 전하던 원포귀래(遠浦歸來) 기레기며 편편중류(泛泛中流)

지향없이 상시상근(相視相近) 해오리며 말잘하는 앵무새며 춤잘추는 학두리미

정수무풍야자바(鏡水無風也自波)에 목욕하던 백구(白鷗)들이 한없이 날라들제

구경을 못다하고 서동부서(婿東歸西) 자리잡아 꽃방석에 앉힌 후에 대부인 마누라

백장문 열어 놓고 은갓 술병 나오는데 목길다 향새병과 목짧다 자라병과 절개있다

죽절병과 홍연자 산호병과 응글등글 수박병과 고려자기 양유병(楊柳瓶)에 술치장

불작시면 청산호호(靑山浩浩) 애(위)국가에 불로장생 천일주(千日酒)며 구월구일

용산음(龍山飲)에 띠어놓은 국화주며 산중처사 송엽주(松葉酒)며 만고성인

백화주(百花酒)며 은파주(銀波酒) 가하주(過夏酒)를 참도 덤도 아니하게 마침맞게

덥혀놓고 동래 전복 쇠전복과 울산 전복 대전복을 은장도 드는 칼로 맹상군
 눈섭채로 어석비석 빼져내여 통영소반 안성유기(安城鑰器) 보기 좋게 채려놓고
 노자자 앵무배에 소인 막독이도 한잔 먹고 대부인 마누라도 한잔 먹어
 일배일배부일배에 취흥이 도도하니 대부인 마누라도 청춘이요 소인 막독이도
 청춘이라 양청춘 마주쳐서 동방화촉이 밝아이다. (창)

이 때 대사가 지루하도록 길어 탄 광대들은 일우(一隅)에 모여 투전놀이 제비뽑기
 기타 장난으로써 관객을 웃기기도 한다)

차양반 : 쉬— (당황하여 장내를 유달리 정돈한 후 말뚝이에게 조용히 질문 확인하고는
 수양반을 제외한 양반들과 상의하고 합창으로)

일 동 : 망했네 망했네 양반의 집이 망했네
 (노래와 함께 한참 춤을 추다가 해산타령에 이어서 갈가부타령을 제창한다.)

<해산타령>

1. 망했구나, 망했구나 양반의 집이 망했구나
 (후렴) 을(孽)씨고 절(僧)씨고 지화자(至下者) 졸(卒)씨고
2. 앞산위에 흑운이 걷고 청춘백일(靑天白日)이 밝아온다.
 (후렴)
3. 참깨 들깨 노는 데는 아주까리도 못놀소나
 (후렴)

차양반 : 쉬— (음악과 춤은 그친다)

차양반 : 양반이 양반다운 짓을 못하여 집안이 망하는 판에 과거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인제 우리 각기 농장으로 어장으로 (공장으로) 학장으로 돌아갑시다.

<갈가부 타령>

1. 가—아리 갈가나부우다.
 가—아리 갈가나부우다.
 님홀로 따라와서 님과 들어서
 나도 갈가나 부우다
2. 노—비 권(곤)식을 다 영이별하고
 님홀로 따라와서 님과 들어서
 나도 갈가나 부우다.
3. 문—전 옥답을 다아 영방매하아여
 님홀로 따라와서 님과 들어서
 나도 갈가나부우다. (음악에 맞추어 갈가부타령을 합창하면서 네광대와 말뚝이는
 퇴장 하고 수양반이 장내에 홀로 남는다)

제2과장 : 영노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쓴 동물(動物)이 등장하여 「비비 비비」 소리를 내면서 수양
 반의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수양반은 깜짝 놀래고 무서워서 뿌리친다. 당기고 뿌

리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며 싸우다가 그 검은 보자기를 베기면 영노의 무서운 가면이 나타난다. 놀랜 양반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치면 영노는 짓궂게 바짝 달라 붙는다.

양반 : 니가 무엇꼬!

영노 : 내가 영노다.

양반 : 니가 어디서 왔노.

영노 : 내가 천상에 득죄하여 잠시 인간(세상)에 내려왔다.

양반 : 니가 무엇을 하는 물건고

영노 : 내가 날물에 날잡아 먹고 들물에 들잡아먹고 양반 아흔 아홉을 잡아 먹고 하
나만 더 잡아 먹으면 득천을 한다.

양반 : (놀라 떨며)내가 양반 아니다.

영노 : 양반 아니라도 먹는다.

양반 : 내가 쇠몽치다.

영노 : 쇠몽치는 쫄쫄더 더 잘 먹는다.

양반 : 내가 그림자다.

영노 ; 그림자는 그(거)침없이 훌훌 잘 넘어간다

양반 : (進退維谷의 양반은 한참 생각타가) 니가 제일 무엇을 무서워하노?

영노 : 참 양반이라면 호령을 하면 물러가겠다.

양반 : 옳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영의정(領議政)이고 우리 징조 할아버지는 이조판서
(吏曹判書)를 지내고 우리 조부님은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고 우리
아버지는 부마도위(駙馬都尉)요 나는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냈으니 나야
말로 참 양반이로 다. 이놈 영노야! 썩 물러가라.

영노 : 옳지! 그런 양반은 잡아 먹어야 득천을 한다. (양반을 잡아 끌고 잡아먹는 형
용을 하며 퇴장하고, 악사는 급한 템포로 풍물을 울린다.)

제3과장 : 할미 · 영감

초라한 흰옷 차림에 죽장을 입고 피로한 기색이 보이는 할미가 등장하여 털석 주저앉는다. 할미는 면경파편(面鏡破片)을 얹어 놓고 노끈으로 털을 밀며 화장한 연후에 일어난다.

할미 : (창조로) 영감이여—. 영감이여.

(영감이 뒤따라 등장하는데 전에는 오광대의 가면 중 아무 것이나 썼다.)

영감 : (창조로) 할머닌가. 할머닌가. (서로 영감 · 할미를 호칭하면서 장내를 빙빙 돌다가 할미는 영감을 자세히 드러다 보고)

할미 : (창조로) 영감, 애올레 망건(網巾), 쥐꼬리 당줄, 대매관자(玳瑁貫子), 호박풍잠(琥珀風簪), 통영 갓은 어데 두고 파립파관(破笠破冠)이 웬일이오.

영감 : (창조로) 그것도 내팔자라 팔자소관을 어이하리,

할미 ; (창조로) 줄변자 가죽신은 어이하고 헌신쩍이가 웬일이오.

영감 : (창조로) 그것도 팔자라 팔자소관을 어이하리 (영감이 퇴장해 버린다)

할미 : (할미가 악사 앞에 와서 한참 춤을 추다가 악사에게)

여부시오, 우리 영감 못 보았오?

악사 ; 당신 영감이 어떻게 생겼오?

할미 : 우리 영감이 홀룡하고 깨끗하고 이마가 투—기 터지고 사모끝 나고 점잔하고 양반
답고 말소리도 알끔살끔하오.

악사 : 방금 그런 양반 이리로 다녀갔오.

할미 : (창조로) 영감이여—. 영감이여—. (부르면서 퇴장한다.)
영감과 소실인 제대각시가 등장하여 긴 장단에 맞춤을 추고 늘 때 할미가 다시 등
장하여 멀리서 그 모양을 자세히 살피다가 영감과 눈총이 마주치면 영감이 할미의
앞을 가리운다. 이 틈을 타서 제대각시는 피신하듯 퇴장한다. 할미가 질투에서
시비를 건다.

할미 ; 그년이 어떤 년이고.

영감 : 아무 년이면 어때... (시비로 설왕설래 한참 다투다가)

영감 : 그래 내가 집을 나올 때 삼존당(三尊堂)이며(사준 땅이며?) 돈 한돈 팔푼이며 자식
삼형제를 다 살게 마련해 주고 혈혈단신(孑孓單身) 나온 나를 왜 추접게 이리고 찾
아 다니는고.

할미 : (할미 기가 막혀 손바닥을 치며) 으휴 아니고 그래 그돈 한돈 팔푼은 이핀(당신)떠
날 적에 하도 섭섭해서 청어 한뭇 사서 당신 한 마리 내 아홉 마리 안 먹었능기
요.

영감 : 너 아홉 마리, 나 한 마리를! 그래 자식 셋은 다 어쨌노.

할미 : (후유 탄식하며 가슴팍을 치고 눈물을 닦은 후에)
큰 늙은 나무하러 가서 정자나무 밑에서 자다가 솔방구(솔방울)에 맞아 죽고, 둘째
늙은 앞도랑에서 미고라지 잡다가 물에 빠져 죽고, 셋째 늙은 하도 좋아서 어루다
가 놀라서 정기로 청풍에 죽었소.
(할미는 영영 통곡한다. 통곡하는 할미를 영감이 화가 나서 발길로 차니, 할미가
실성하여 졸도한다.)

영감 : (당황하여 악사에게) 요보 요보, 의원을 좀 불러주소

악사 : 의원. 의원! (의원은 가면없이 갓을 쓰고 두루막을 입고 등장한다)

의원 ; (맥을 짚어보고) 급상한(急傷寒)이라 난치병이로군 (침만 한 대 놓고 퇴장한다)

영감 : (다시 악사에게) 요보 요보 이 근처에 봉사가 있거든 봉사 좀 불러주소

악사 : 봉사. 봉사님. (봉사 평복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등장하는데 소고를 들고 있다.)

봉사 : 예, 어디서 불렀오?

영감 : 여기요. 여기, 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을 일러주소.

봉사 : (소고를 두드리며 독경한다.)
海東朝鮮國 慶尙南道 釜山 水營洞 居住 沈달내 身運이 不幸하여 偶然卒倒하였
으니 天地神明은 大慈大悲 하옵소서. 千手千眼 觀自在菩薩 廣大圓滿 무득 大悲心大
多羅尼 一東方 潔道場 二灑南方 得清涼 三灑西方 俱淨土 四灑北方 永安康 道場清淨
無碍境 三寶天龍 降比地 我今持誦 妙眞言願賜慈悲 密加護 我昔所造 詣惡業 從身口
意之所生……
(독경도중 할미가 절명하니 봉사는 무안하여 급히 퇴장한다.)

영감 : (하는 수 없이 악사에게) 요보 요보. 이제 할 수 없으니 향도군이냐 불러주소.

악사 : 요보, 향도군 나오소 (흰 옷에 두건(頭巾)을 쓴 향도군이 7~8명 등장한다)
향도군은 시체를 상영 올려서 상여를 매고 향도가(또는 상여가)를 부르며 출상

(出喪)한다.

〈향도가〉

아— 에이— 에이—

아— 에이— 에이— (복창)

1. 어흐— 아하— 슬프고 슬프군 이—으이—

어찌하야 슬프도 모르뇨—.

백년이 못다가서 이—

공동묘지가 슬프구나.

(후렴) 아— 에이— 에이—

2. 아— 공동묘지 돌아갈 때에—

신(심)산편노로 어찌갈꼬 이—

니가 가면 어찌 갈꼬 이—

니가 가면 언제 오노

(후렴) 아— 에이— 에이—

어하오 어하오 어와 영차 어하오.

어하오 어하오 어와영차 어하오 (복창)

3. 북망산행이 멀다하니

어느 산이가 북망이오.

(후렴) 어하오 어하오 어와영차 어하오.

4. 이제 가면 언제 오노

다시 오기가 글렀구나

(후렴) 어하오 어하오 어와영차 어하오.

(이 때 영감은 두건에 작지를 잡고 상여 뒤를 따르고, 악사들도 뒤따라 퇴장한다.)

전에는 위의 〈(향도가)〉 대신 아래의 (염불가)를 불렀다고 한다.

1. 저건너 저것이 북망산이나

어서 가고 바비 가자.

(후렴) 니나실 난뇨 니난실 난뇨.

나무아미염불이라.

2. 다시 갔다 못오는 길을

속히 가면 무엇하랴

(후렴)

3. 황령추존(荒零秋尊) 북망산에

만고 영웅 토일부라.

(후렴)

4. 고정무의(孤寂無依)한 이 영혼을 극락세계로 모셔보자.

(후렴)

제4과장 : 사 자 춤

거대(巨大)한 사자(獅子)가 춤을 추며 등장한다. 사자가면(獅子假面)은 수영야유(水營野遊) 가면(假面) 중(中) 제일 큰데 사자(獅子)두부(頭部)엔 한사람, 마대(麻袋) 혹은 담요로 만든 몸체에 한사람. 꼬리 쪽에 한사람 모두 세 사람이 들어간다. 다른 사자춤과 마찬가지로 몸체 속에 들어간 세 사람들끼리 조화(調和)된 춤을 춰야 한다.

웅박깡깡 조(調)의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말뚝이가 사자를 몰고 등장하면 음악에 맞추어 한참 춤을 추면서 장대를 들고 있을 때 범이 범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이 때 말뚝이는 자리를 비켜주고 사자와 범은 서로 으르렁대며 격투난무(格鬪亂舞)한다.

일장(一場) 투무(鬪舞) 끝에 마침내는 범이 사자(獅子)에게 잡혀 먹힌다. 범은 사자 몸 속에 들어간 채 사자는 범을 끼고 춤추면서 서서히 퇴장한다.

가면(假面) 및 의상(衣裳)과 제도구(諸道具)

여기서 언급한 가면(假面) 및 의상(衣裳)과 제도구(諸道具)들은 현재(現在) 수영동(水營洞)에서 사용중인 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였다.

1. 수양반(首兩班)

① 바가지, 종이, 말총.

② 바가지에다 종이 부하다 얼굴은 연분홍 칠을 하였으며 이는 은지를 붙였다. 코는 뚫리지 않고 콧구멍을 그렸다. 수염과 눈썹은 말총으로 만들어 검으며 턱이 움직인다. 눈 가장자리는 먹으로 검게 그렸다.

③ 높이 28cm. 넓이 21cm. 수염길이 30cm. 코높이 5cm. 귀길이 11cm. 귀넓이 5cm
(사모 높이 24cm. 너비 19cm)

④ 사모관대에 사선을 든다. 청색 단령에 학 두 마리인 당상관의 흉배를 달고 목화를 신는다.

2. 차양반(次兩班)

① 바가지, 종이, 토기털.

② 붉은 바탕색에 흰 수염(토기털)을 달고, 귀를 검게 그렸다.

③ 높이 23cm, 너비 22cm, 수염길이 7cm, 코높이 3cm, 귀높이 8.5cm 귀넓이 3.5cm.
(모자높이 13.5cm. 모자넓이 26cm)

④ 흰 도포에 푸른 술디, 죽장 짙고 담배대를 들고 토끼털로 된 모자를 쓴다. 미투리를 신었다. 흰 종이 술이 달린 채찍을 든다.

3. 셋째 양반

① 바가지, 종이, 말총.

② 연분홍 얼굴 바탕에 말총으로 된 검은 수염과 눈썹을 달고 입·눈 가장자리, 귀는 모두 먹으로 그렸다.

③ 높이 27cm, 넓이 20cm, 수염길이 30cm, 코높이 4cm, 귀길이 10cm, 귀넓이 4cm

④ 흰 도포에 붉은 술띠, 정자관을 쓰고, 미투리를 신었다. 흰 종이 달린 채찍을 든다.

4. 넷째 양반

① 바가지, 종이, 말총.

② 붉은 연분홍 바탕에 붉은 점, 검은 점이 무수히 찍혔고, 입술은 언챙이(썰보)다.

검은 수염과 눈썹은 말총이고, 눈 가장자리와 귀를 먹으로 그렸다.

③ 높이 24.5cm, 넓이 20cm, 수염길이 20cm, 코높이 3.5cm, 귀길이 10cm, 귀넓이 4cm.

④ 연분홍색 소창옷에 충정관(冲正冠)을 쓴다. 미투리를 신었다.

5. 종가도령(宗家道令)

① 바가지, 종이, 말총

② 연분홍색 바탕에 검은 말총 눈썹을 달았고 눈 입 가장자리와 귀는 먹으로 그리고, 코는 뚫리지 않고 그렸다. 수염은 없다.

③ 높이 23cm, 넓이 20cm, 코높이 3.5cm, 귀길이 10cm, 귀넓이 4.5cm

④ 검은 두건 쓰고 흰 바지저고리 위에 푸른 덧저고리를 입은 도령복색이다. 미투리를 신는다.

6. 막독이(莫得이)

① 바가지, 종이

② 얼굴은 바가지에 종이를 부해 만들었다. 안면은 연분홍의 바탕색이며 그 위에 역시 붉은 색의 23개의 흑을 달았다. 종이를 꼬아 만든 귀도 연분홍색이다. 눈과 입 가장자리에는 은지를 붙였다. 이마에는 황, 홍, 녹색의 삼색 조화(造花)를 달았다. 가면 안쪽에 이마받이를 대었다.

③ 높이 34cm, 넓이 33cm, 코높이 2.5cm

④ 하인 복색으로 흰 바지저고리에 노란 덧저고리를 입었으며 패랭이를 썼다. 끝에 꽃이 달린 채찍(길이 75cm)을 든다. 짚신에 감발하고, 바른 무릎아래엔 붉은 윗대님, 왼쪽무릎 아래엔 바른쪽 보다 좀 낮게 흰 윗대님을 매었다.

7. 영노

① 바가지, 종이, 말총

② 바가지에다 종이를 부하였으며, 얼굴 전면의 바탕색은 연분홍색이다. 미간에 노란 털이 드리우고 머리 위엔 대호(大呼)의 두 뿔이 있으며 입은 귀 아래까지 올라가 양편에 뚫렸으며 대소의 흑이 14개(쌍흑 1개 포함) 달렸다.

③ 높이 27cm, 넓이 22cm. 큰 뿔까지의 높이 40cm, 작은 뿔까지의 높이 36cm, 코높이 4cm, 미간의 털길이 15cm.

④ 본래는 온 몸에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비비」 소리를 내었다고 하나, 지금은 흰 바지에 검은 덧저고리를 입고, 붉은 띠를 허리 높이 매었다. 짚신에 양쪽 무릎 아래 흰 윗대님을 매었다.

8. 영감

① 바가지, 종이, 말총, 토끼털.

② 수염과 콧수염은 말총이고 눈썹은 토끼털을 달았다. 눈 가장자리, 귀, 입술은 검은 먹으로 칠하였다.

③ 높이 23cm, 넓이 18cm, 수염길이 12cm, 코높이 2.5cm, 귀길이 11cm, 귀넓이 3.5cm

④ 옥색 두루마기에 술띠, 갓을 쓰고 짚신 감발하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다.

9. 할미

① 바가지, 종이, 말총

② 얼굴 복판에 큰 코가 삐뚜러미이고 붉은 흑, 흰 흑, 2개가 코 위아래에 달리고 검은 점이 무수히 찍혔다. 입은 코 위아래에 뚫리고, 볼에 연지를 찍혔다. 입은 코 위아래에 뚫리고, 볼에 연지를 찍었다. 귀, 눈 가장자리는 검게 그리고 입술은 붉게 칠했다.

눈썹은 검은 말총이고, 코는 뚫리지 않았다.

③ 높이 26cm, 넓이 23cm, 코높이 5cm, 코길이 25cm, 귀길이 10cm, 귀넓이 4cm

④ 흰 치마 저고리에 수건처럼 작은 붉은 색의 장옷을 머리 위에 썼으며 대나무 지팡이를 짚었다.

10. 제대각시

① 종이

② 두꺼운 흰 종이를 만든 평면화(平面畫)이다. 머리, 눈썹, 귀를 그리고 연지, 끈지를 진하게 찍었다. 입은 뚫리고, 코는 삼각(三角)으로 접은 종이를 붙여 오뚝 솟게 하였다.

③ 높이 26cm, 넓이 22cm, 코높이 3cm

④ 다홍치마 노랑저고리에 고깔을 쓴다. 고깔 위에 붉은 색과 노란 색의 조화 세 개가 없힌다.

11. 범

① 소쿠리, 종이, 마대포(麻袋布)

② 소쿠리에다 종이 입히다. 입은 약간 벌렸으며 이발(6개)과 눈 가장자리는 은지로 붙였다. 눈은 뜯렸으며, 귀를 달았다. 검붉은 바탕색에 먹으로 범의 얼굴을 그렸다. 얼굴에 달린 몸뚱이는 마대포(麻袋布)로 만들고, 검은색과 붉은 색으로 범 몸뚱이의 무늬를 그렸다. 불알과 자지가 달려있고, 한 사람이 뒤집어 쓴다.

③ 얼굴높이 32cm, 얼굴넓이 30cm, 귀높이 6cm, 귀넓이 6cm, 코높이 2.5cm, 코길이 9cm, 꼬리 122cm 전신(全身)길이 217cm

④ 긴 꼬리가 달렸다.

12. 사자

① 소쿠리, 종이, 마포(麻布), 마사(麻絲).

② 소쿠리에다 종이 입히다. 안면에 붉은색, 검은색으로 털을 그리고 적·황·갈색의 마사(麻絲)로 갈기 달다. 붉은 바탕색에 눈 위와 이발에는 은지를 발랐으며 입은 반개(半開)하였다. 눈은 크게 뚫렸다. 머리에는 방울이 4개 달렸고 꼬리도 달렸다.

③ 얼굴 높이 57cm, 너비 55cm, 코길이 18.5cm, 코너비 12cm, 꼬리 55cm 길이 전신(全身)길이 358cm

④ 범과 마찬가지로 검은 색과 붉은 색으로 줄무늬를 그린 몸뚱이는 다대포인데 보통 세 사람이 들어간다.

13. 악사(樂士)들

복색은 노란색과 붉은 색의 조화(造花)가 달린 고깔을 쓰고 흰 바지저고리 위에 푸른 쾌자를 입었다.

연희자(演戲者)

姓 名 : 鄭時德(男)

生 年 月 日 : 1984年 3月 17日生.

本 籍 : 釜山市 東萊區 民樂洞 73番地

住 所 : 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44番地

職 業：없음

學力 및 經力：漢學 故 趙斗榮 氏에게 師事, 野遊劇에 50餘年間 參與하였음.

保 有 種 別：兩班층

姓 名：李次夏(男)

生 年 月 日：1900年 7月 10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116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164番地

職 業：없음

學力 및 經力：漢學, 故 趙斗榮 氏에게 師事 20餘年間 演戲, 演奏

保 有 種 別：영감, 樂士(장고)

姓 名：李相贊(男)

生 年 月 日：1900年 10月 16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317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331番地

職 業：없음

學力 및 經力：漢學, 故 崔漢福 氏와 鄭時德 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戲

保 有 種 別：범(담보)

姓 名：太命俊(男)

生 年 月 日：1904年 10月 20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廣安洞 62番地

住 所：위와 같음

職 業：紹介業

學力 및 經力：漢學, 故 趙斗榮, 崔漢福 兩氏에게 師事. 40餘年間 演戲

保 有 種 別：首兩班, 봉사.

姓 名：趙在俊(男)

生 年 月 日：1906年 5月 6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332番地

住 所：위와 같음

職 業：農業

學力 및 經力：漢學 故 趙斗榮 氏에게 師事, 50餘年間 演戲.

保 有 種 別：말뜰이

姓 名：金貴秀(男)

生 年 月 日：1909年 11月 8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48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58番地

職 業：農業

學力 및 經力：中學卒，故 崔漢福氏와 鄭時德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戲.
保有 種別：할미.

姓名：趙德周(男)

生年月日：1914年 2月 3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말미동 334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309番地

職業：없음

學力 및 經力：國卒，故 趙斗榮 氏 子弟로 어릴때부터 父親에게서 師事 傳受받음.

保有 種別：假面製作.

姓名：朴南水(男)

生年月日：1914年 11月 15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廣安洞 845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1의 1番地

職業：商業

學力 및 經力：中卒，故 趙斗榮，崔漢福 兩氏에게 師事 30餘年間 演戲.

保有 種別：셋째兩班.

姓名：金基萬(男)

生年月日：1915年 2月 5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廣安洞 60番地

住所：위와 같음

職業：農業

學力 및 經力：國卒，故 趙斗榮 氏에게 師事 30餘年間 演奏.

保有 種別：樂士(장고).

姓名：李月文(男)

生年月日：1915年 6月 12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141의 1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113番地

職業：農業

學力 및 經力：國卒，故 崔漢福 氏와 鄭時德 氏에게 師事, 5년간 演奏.

保有 種別：樂士(징)

姓名：尹守萬(男)

生年月日：1916年 2月 14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91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廣安洞 81番地

職業：建材業

學力 및 經力：國卒，故 崔漢福，趙斗榮 兩氏에 師事 30餘年間 演奏.

保有種別：樂士(쟁쇠)

姓名：韓萬植(男)

生年月日：1916年 2月 26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209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229番地

職業：商業

學力 및 經力：國卒, 故 崔漢福 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戲.

保有種別：넛재兩班

姓名：金達鳳(男)

生年月日：1917年 10月 10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53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172番地

職業：農業

學力 및 經力：國卒, 故 崔漢福, 趙斗榮 兩氏에게 師事 30餘年間 演戲.

保有種別：영노, 의원.

姓名：盧永奎(男)

生年月日：1919年 10月 19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廣安洞 68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廣安洞 57番地

職業：商業

學力 및 經力：國卒, 故 趙斗榮, 崔漢福 兩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戲.

保有種別：宗家道令

姓名：金石根(男)

生年月日：1920年 3月 1日生

本籍：釜山市 東區 佐川洞 511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4番地

職業：商業

學力 및 經力：國卒, 故 趙斗榮, 崔漢福 兩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戲.

保有種別：영감.

姓名：趙福俊(男)

生年月日：1920年 8月 3日生

本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150番地

住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16番地

職業：農業

學力 및 經力：國卒 故 趙斗榮, 崔漢福 兩氏에게 師事 30餘年間 演奏.

保有種別：樂士(장고)

姓 名：金奉泰(男)
生 年 月 日：1922年 2月 24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707番地
住 所：위와 같음.
職 業：農業
學力 및 經力：國卒 趙福俊, 趙德周 兩氏에게 師事, 5年間 演奏.
保 有 種 別：樂士(북)

姓 名：金容泰(男)
生 年 月 日：1922年 8月 13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147番地
住 所：위와 같음
職 業：商業
學力 및 經力：中學卒, 故 趙斗榮, 崔漢福 兩氏에게 師事, 20餘年間 演戲.
保 有 種 別：사자(첫째 役)

姓 名：羅機福(男)
生 年 月 日：1922年 9月 18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134番地
住 所：위와 같음
職 業：農業
學力 및 經力：中學卒 故 崔漢福 氏와 鄭時德 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戲.
保 有 種 別：두째兩班

姓 名：鄭大允(男)
生 年 月 日：1923年 4月 20日生
本 籍：釜山市 影島區 青鶴洞 377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51의 10番地
職 業：畜產業
學力 및 經力：大學卒, 崔漢福氏에게 師事, 20餘年間 演戲.
保 有 種 別：兩班

姓 名：金鶴文(男)
生 年 月 日：1925年 9月 9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水營洞 2番地
住 所：위와 같음.
職 業：農業
學力 및 經力：中學卒, 故 崔漢福氏와 鄭時德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戲.
保 有 種 別：제대각시.

姓 名：李興俊(男)
生 年 月 日：1927年 8月 25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119番地
住 所：위와 같음
職 業：畜産業
學力 및 經力：專門學校卒, 鄭時德, 趙德周 兩氏에게 師事, 5年餘 演戲.
保 有 種 別：사자(세째 役)

姓 名：李聖基(男)
生 年 月 日：1927年 9月 8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118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471番地
職 業：畜産業
學力 및 經力：國卒. 鄭時德, 趙德周 兩氏에게 師事, 5年餘 演戲.
保 有 種 別：말독이

姓 名：金泰春(男)
生 年 月 日：1929年 2月 15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120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166番地
職 業：商業
學力 및 經力：國卒, 故 崔漢福氏에게 師事, 10餘年間 演奏.
保 有 種 別：樂士(장고, 북).

姓 名：金玉千(男)
生 年 月 日：1931年 1月 5日生
本 籍：慶南 南海郡 雪川面 丁太里 899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207番地
職 業：運送業
學力 및 經力：國卒, 鄭時德 氏에게 師事, 5年餘 演戲.
保 有 種 別：범(담보)

姓 名：裴碩萬(男)
生 年 月 日：1931年 4月 12日生
本 籍：釜山市 東萊區 蓮山洞 54番地
住 所：釜山市 東萊區 望美洞 175番地
職 業：會社員
學力 및 經力：陸士卒. 鄭時德, 趙德周 兩氏에게 師事, 5年餘 演戲.
保 有 種 別：사자(두째 役)

參考文獻

- 慶尙南道誌 下卷 第8篇 民俗 第五章 民俗劇 1963.
康 龍 權 稿 水營野遊劇 국어국문학 第二十七輯, 1964
拙 著 韓國假面劇 文化財管理局, 1969.



<page 79 사진>